

韓・日兩國 數詞의 語源究明

國際電氣企業(株) 常務理事 李在淑※

Abstract

This essay will introduce that how the Korean and Japanese numerals have been developed from the same ancient original words.

It would be a big interest for many people who have interested in knowing the origin of Japanese language of which many Japanese scholars tend to define Japanese language to be one of mysterious ones.

This essay however would unveil the origin of Japanese language referring to the close 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explained by the writer.

Such achievement have been accomplished by the adoption of method of putting the corresponding both countries words in series arrangement developed by the writer.

I. 韓・日兩國 數詞의 語源究明

우리들 技術者은 日常生活에 있어 恒常 數와 유달리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數詞가 어떤 經路를 거쳐서 發達해 왔는지 究明해보는 것은 興味로운 課題라고 할 수 있다.

筆者는 이 問題를 解明키 爲해서는 于先 우리 말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 日本語의 數詞도

併行하여 檢討하는 것이 良策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即, 過去에 있어 韓・日兩國의 數詞는 同一하였고, 이것이 分離하여 現在와 같은 數詞로 發達했다는데 그 原因이 있다. 韓・日兩國語의 共同祖語가 過去에 있어 同一하였다는 것은 數詞以外의 一般語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本文에서는 數三의 一般語에 對해서 그 共同祖語가 같다는 證明을 몇가지 例를 들고 이 原則을 數詞의 語源究明에도 適用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고자 한다.

釜는 韓國語로 「술」, 日本語는 「가마」라 한다. 그리고 韓國語에서는 大形의 釜를 「가마술」이라고 부른다. 即, 釜의 現在와 같은 韓・日兩國語는 「가마술」에 가까운 共同祖語가 分離하여 成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

鼻는 韓國語로 「코」, 日本語는 「하나」라고 부른다. 兩國語의 結合體에서 우리는 「하나코」라는 말을 찾아낼 수 있고, 이 말은 韓國語로 解釋하면 한개의 코(一鼻)가 되어 顔面에 한개밖에 없는 事實과 符合된다. 即, 鼻의 現在와 같은 兩國語는 「하나코」에 가까운 共同祖語가 分離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口는 韓國語에서는 「입」, 日本語에서는 「구지」라고 부르는데 兩國語를 이 順序대로 結合시켜 보면 「입구지」가 된다. 「입구지」에 있어 「입」의 「ㅂ」을 除去하면 「이」가 되고 「이」를 「히」로 바꾸면 「입구지」는 「히구지」가 된다. 그리고 「히구지」의 뜻은 「히」가 日本語數詞의 하나 即, 一個를 뜻하므로 亦是 「한개의 구지」가 된다. 即, 現在의 兩國語는 「히구지」가 分離하

※ 電氣技術士(發送配電)

여 成立된 것으로 證明할 수 있다.

聽의 우리말은 「듣기」이고, 日本語는 「기고에 루」이다. 卽 兩國語의 語源은 「드기오」에 가깝고 그 原來의 뜻은 兩耳(두귀)에서 온 것 같다. 卽, 現在와 같은 兩國語는 兩耳(두귀)를 뜻하는 말이 分離하여 成立된 것으로 判斷된다.

또 風은 日本語로 「가제」, 韓國語는 「바람」이라고 말한다. 韓國語에서 強風을 「거센바람」이라고 表現한다. 卽, 日本語의 「가제」는 「거센바람」의 語源인 가시(日本語에 나타나는 가시도리=鷺, 가시고도고로=賢所, 히가시=東의 가시) 바람의 「가시」에서 온 것으로 判斷된다.

以上에서 韓·日兩國語에 있어 같은 뜻을 가진 兩語를 直列로 結合시키면 그 語源을 再現시킬 수 있다. 筆者는 이 法則 卽, 直列法을 活用하여 韓·日兩國語의 數詞를 究明해보기로 한다. 卽, 韓·日兩國語의 過去의 共同數詞를 究明함으로써 現在 우리나라 數詞의 來歷을 明確히 할 수 있다.

II. 現行 兩國語의 數詞

現在 使用되고 있는 韓·日兩國 數詞의 語幹은 大略 다음과 같다.

漢	韓	日
一	하나	히
二	둘	후
三	셋	미
四	넷	요
五	다섯	이주쑤
六	여섯	무
七	일곱	나나
八	여덟	야
九	아홉	고고
十	열	도

이러한 兩國數詞의 語幹에 對하여 直列法等을 利用하여 數詞의 語源을 究明키로 한다.

1. 數一(하·韓, 히·日)

數一을 가르키는 兩語를 合하면 「하히」가 된다.

「하히」는 果然 무슨 뜻을 가졌고, 또 이 말이 어떻게해서 數一을 나타낼 수 있는지 檢討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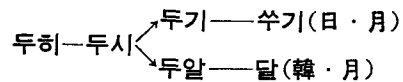
「하」는 古語에 있어 巨大함을 뜻하고, 韓國의 「한」도 같은 뜻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다음 「히」는 日本語에서 太陽 또는 火를 뜻한다.

卽, 「하히」는 巨大한 火 卽, 太陽을 뜻하는 말로 解釋할 수 있다. 그러면 이말이 數一을 뜻하게 된 原因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太陽이 天空에 唯一한 存在인데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卽, 數一의 表現은 一手의 一指를 세우고 「하히」라고 해서 그 意志를 傳達했다고 볼 수 있다. 現在의 兩國數詞는 「하히」가 分離하여 成立된 것이다.

2. 數二(둘·韓, 후·日)

兩國語를 合하면 「두후」가 된다. 그리고 「두후」의 原形은 「두히」로 判斷된다. 韓國語에서 火는 「불」이라고 하는데 光을 「빛」이라고 하는 것을 參照하면 「불」의 祖語는 「히」로 判斷된다. 以上에서 「두히」도 一種의 光體를 表現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日本語에서 月을 「쑤기」라 하고 韓國語에서는 「달」이라고 하는데, 月의 祖語가 「두히」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卽,



上記에서 「두」가 「쑤」로 變하는 예는 日本古語를 研究하면 알 수 있고, 또 「시」가 「알」로 變할 수 있는 것은 韓國語에서 씨앗(實)과 알(卵)이 同意語인데에서도 求할 수 있다. 卽, 數二를 뜻하는 「두후」는 달(月)을 가르키는 말이고, 이 말이 數二를 뜻하게 된 것은 天空에 太陽以外에 太陽과 恰似한 또하나의 天體가 있다는데서 온 것이다. 數二는 一手의 兩指를 세우고 「두히」라고 외치면서 相對方에서 意志傳達을

한 것이다. 韓·日兩國의 現在의 數詞는 「두히」即, 때로는 「두후」라고 말하던 「두후」가 分離하여 成立된 것이다. 韓國語에서 이렇게 分離된 「두」가 二의 뜻으로 使用되고 있는 例는 人體語의 불알(睾丸)의 「불」을 들 수 있다.

3. 數三(셋·韓, 미·日)

韓國數詞 「셋」은 方言을 參照하면 「시」가 原形으로 看做된다. 兩國語를 合하면 「미시」가 된다. 「미시」는 무엇을 뜻할까. 「시」를 받침으로 看做하여 發音하면 「밑」이 되고 韓國語의 下를 뜻하는 말이다. 또 「시」單獨으로서는 日本語 시(下)의 「시」와 通한다. 또 「미시」로서 檢討하면 韓國語로서는 아래(下)이다 라는 뜻이 된다. 以上으로서, 「미시」는 下를 뜻하는 말로 分析된다. 그러면 이 말이 三을 뜻하게 된 原因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說明할 수 있다. 即, 數三은 둘(二) 밑에 하나(一)로 表現되고, 時日의 經過에 따라 上下의 二와 一은 漸次 사라지고, 미시(下)만을 의치고 表現한데서 온 것이라고 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또 長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미시」로 分離하여 現在와 같은 兩國語로 發展한 것이다.

即, 數三의 數詞는 原來 下를 뜻하는 「미시」라는 祖語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數三의 具體的 表現은 一手의 兩指를 세우고 또한편 他手의 一指를 세우고 兩指 밑에 一指를 갖다놓고 「두히」, 「미시」, 「하히」라고 의치고 相對에게 意志 傳達를 한 것이다.

4. 數四(넷·韓, 요·日)

數四의 表現은 두가지 方法이 使用되었다. 그리고 韓國語數詞 「넷」의 原形은 「니」이고 「니」는 또 「미」의 變化라는 것을 念頭に 두고 이 檢討를 進行한다.

數四의 한가지 表現은 二下二, 即, 두히(二), 미시(下), 두히(二)였고 時日의 經過에 따라 上下의 두히(二)는 사라지고 미시(下)만이 남고, 이 미시(下)가 數三의 미시(下)와의 混沌을 防

止하기 爲하여 「니시」로 變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니시」가 또 長時日을 두고 使用된 結果 「니」만이 남은 것이 韓國數詞 四의 祖形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表現方法은 二橫二即, 두히(二), 여(橫), 두히(二)이고, 時日의 經過에 따라 上下의 두히()가 사라지고 여(橫)만이 남은 것이 日本數詞 四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數五(다섯·韓, 이주수·日)

韓國數詞 다섯은 두(二)와 시(三)의 羅列에서 온 「두시」의 變化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시」가 「다섯」으로 變換 原因은 「두시」가 두히(二)와 混沌을 가져오는 것을 防止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한편 日本語數詞 이주수는 「히두두」即, 一·二·二의 羅列에서 온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

6. 數六(여섯·韓, 무·日)

韓國數詞 여섯의 原形은 「여시」이고, 이 말은 三橫三의 橫三에서 온 것이다. 即, 數六은 시(三), 여(橫), 시(三)로 불리었으나 上部의 시(三)는 사라지고 橫三(여시)만이 남고 이것이 變하여 現在와 같은 數詞로 된 것이다.

한편 日本語數詞 「무」는 數六이 시(三), 시(下), 시(三) 또는 미(三), 미(下), 미(三)로 表現하다보니 번거로워서 시(三), 시(下), 시(三)는 「무시」, 미(三), 미(下), 미(三)는 「무미」로 부르는데서 온 것이다. 「무」는 韓國語의 무리(群), 日本語의 무래(群)의 「무」와 同意語이다.

7. 數七(일곱·韓, 나나·日)

韓國語數詞 일곱은 方言을 參照하면 「니곱」이 原形이다. 그리고 「니곱」의 곱은 倍數를 뜻함으로 니곱의 原形은 또 「니니」가 된다.

即, 數七의 表現은 미(三), 니(四) 또는 니(四), 미(三)의 羅列로서 이루어졌던 것이 「니

니」로 變하였다고 볼 수 있다.

日本數詞「나나」도 始初「니니」였던 것이 이렇게 變했다고 볼 수 있다.

8. 數八(여덟 · 韓, 야 · 日)

韓國數詞 여덟은 「여들」의 變化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들」은 數八이 여(四), 여(橫), 여(四)의 羅列로서 表現되었으나 번거로워서 「여들」即, 「여」의 群으로서 나타낸 것이다. 한편 日本語數詞 「야」는 「여들」의 「여」의 變化에서 온 것으로 判斷된다.

9. 數九(아홉 · 韓, 고고 · 日)

數詞 九는 始初 現在의 것과는 全然 別途의 表現인 것으로 看做된다. 即, 韓國數詞 아홉은 一無의 뜻으로 풀이되어 열(十)에서 하나(一)不足이라는 說明이 成立되는데에 起因한다.

日本語에서는 低能 또는 不足한 사람을 「아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韓國數詞 아홉을 解釋해 주는 것으로 본다.

即, 「아홉」은 「아」가 하(一)이고, 「홉」은 「없」의 同意語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日本語 「고고」도 始初는 「하어」였으나 아호(低能)가 一般語로 普遍化함에 따라 이 말과의 混亂을 막기 위하여 「하」가 「가」로, 「어」가 「고」로 即, 「가고」이 말은 또 가고(驍)와 混亂을 가져오므로 「가고」가 「고고」로 變하였다고 본다.

10. 數十(열 · 韓, 도 · 日)

韓國數詞 「열」은 五 · 橫 · 五 即, 다시(五), 여(橫), 다시(五)로 表現된 것中에서 여(橫)만이 殘存하고 「여」가 「열」로 變하여 成立된 것으로 본다. 한편 日本語數詞 「도」는 다시(五), 도(亦), 다시(五)의 表現에서 도(亦)만이 採擇된 것이다.

Ⅲ. 證資料

以上の 論說이 妥當한지의 與否는 數詞解釋에서 相互間에 相衝되는 點이 없는 것으로서도 充分히 判斷할 수 있으나, 더한층 妥當化시켜주는 資料는 西紀 750年頃의 韓半島 地名을 記錄한 「三國史記地理志」에서 求할 수 있다.

數詞에 關係되는 新羅地名: 一直縣의 一直, 直字는 日本語로 訓讀하면 「나호」임으로, 一直은 「하나」의 異寫이다.

一善縣 또는 一善郡의 善字는 韓國語로 訓讀하면 「나아」임으로 一善도 「하나」의 漢字表記로 볼 수 있다. 三良縣一云推良火縣에서 三과 推가 對應하고 있어 三(시)와 推(미) 即, 韓 · 日 兩數詞가 共存하고 있다. 居烈郡一云居陀郡에서 烈(열)과 陀(타)가 對應하고 있어 十의 兩國數詞의 關係가 類似한 點을 나타내고 있다.

高句麗地名: 三峴縣一云密波兮縣으로 나타나는 地名이 있는데 三은 「시」, 密은 「미」로 읽을 수 있어 韓 · 日 兩國의 三의 數詞가 共存하고 있다. 七重城一云難隱別로 나타나는 地名이 있는데 七重은 「일곱」, 難隱은 「나나」로 읽을 수 있다. 또 十谷城一云德頓忽로 불리우는 地名이 있는데 十은 「열」, 德은 「도」로 읽을 수 있다.

百濟地名: 悅已縣一云豆串城이라는 地名이 있는데 悅은 열(十), 豆도 도(日 · 十)로 읽을 수 있어 亦是 現在로서는 完全히 獨立된 韓 · 日 兩國數詞가 韓半島에서는 併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數詞의 助詞

韓國數詞의 하나(一)의 나, 日本語數詞의 히도쥬(日 · 一)의 도쥬 또는 후다쥬(日 · 二)의 다쥬는 무슨 뜻을 가졌는지 檢討해 보기로 한다.

數一 또는 數二를 뜻하는 兩語의 數詞의 祖語는 太陽(하리)과 月(두히)이었다. 따라서 前記의 「나」와 「도쥬=다쥬」는 日月의 出現을 뜻하

는 말이다. 卽, 韓國語의 해나(日出)의 「나」, 해돋다(日出)의 「돋」에 該當하는 말이다.

V. 數詞에서 派生한 語彙

數詞는 言語發達過程에서 比較的 初期에 成立된 關係로 數詞에서 抽象的인 重要的 語彙가 派生하고 있다.

數詞 四(祖語 미시, 韓·니, 日·요)

韓國數詞 니(四)에서 日本語 니루(似)가 또 祖語 미시(四)에서 韓國語 비섯(似)이, 또 兩國數詞를 合한 「니요」에서 日本語 니요루(似)가 派生하고 있다. 이러한 語彙가 發生한 原因은 四의 構成要素인 二와 二가 類似하여 兩手의 兩指를 세우고 相對에게 前記한 數詞를 의친에서 온 것으로 본다.

數詞 五(祖語 히두두, 日·이주쑤)

韓國語의 줄(綱), 줄줄(多數의 表現), 주오(給與), 좋다(良好)가, 그리고 日本語의 쑤나(綱), 수주(鈴)가 이 數詞에서 派生되었다.

數詞 九(韓·아홉)

이 數詞에서 日本語의 아호(低能) 그리고 韓國語의 바보(低能)라는 語彙가 發生하고 있다.

數詞 十(韓·열, 日·도)

派生語를 檢討하기 前에 數詞 「도」의 來歷을 究明하기로 한다. 「도」는 韓國語의 해돋다(日出)의 「돋」에서 왔다고 풀이된다. 卽, 日出의 現象은 無限히 反覆되는 데에 있다. 그리고 韓國語에서는 또(亦)로 나타난다. 數詞十이 古代에 있어 다섯(五), 도(亦), 다섯으로 表現되었다고 풀이되는 것은 韓國語에서 「또」로 反覆를 뜻하지만 「또다시」가 變換 「또다시」도 亦是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起因한다.

다음, 數詞 「열」에서 派生하고 있는 語彙는 여럿(韓多數), 요로주(日·多數), 또 多數라는

뜻이 擴張되어서 야루(日·授與), 요이(日·良好)가 있고, 또 數詞 「열」은 兩手의 兩指를 全部 展開하여 表現한 關係로 여러(韓·開)가 있고, 또 이와 關聯되어 도(日·門)가 派生하고 있다. 또 이 以外에 多數라는 뜻을 內包하고 있는 關係로 混沌과 關聯되는 도고(日·何處), 어디(韓·何處)가 亦是 派生하고 있다.

VI. 結 論

直列法을 利用하여 韓·兩國의 數詞를 檢討한 結果 兩國의 數詞는 太陽을 가르키는 「하하」와 月을 뜻하는 「두히」가 基本이 되어 漸次 長時日을 두고 上位의 數詞로 發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數詞發達의 過程에서 元來는 下(머시), 橫(어 또는 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數詞로 變하는 事例, 또 三下三이 「시시시」 또는 「미미미」로 되는 것에서 온 數詞 무(日·六) 그리고 四橫四가 「여여여」로 되는 것에 着眼한 數詞어 들=여덟(韓八)는 相當히 興味를 끄는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또 數詞 九는 十을 念頭에 둔 一無(하없)에서 오고 이것이 이 形態로 固定되기까지는 複雜한 다른 形態였고, 相當한 時日이 經過되었다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그리고 三國史記 地理志를 參照하면 現在로서는 確然히 日本語 數詞로 區別되는 미(三), 나나(七) 그리고 도(十)가 壹千餘年前 韓半島에서 現在의 韓國數詞와 共用되고 있다는 事實은 韓·日兩國의 數詞가 同系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過去 同一한 數詞가 漸次 分離한 主要原因은 言語發達의 한 過程에서 온 것이고 이 分離現象을 促進한 것은 使用文字의 特性, 原住民 또는 周邊民族의 言語의 影響이었다.

以上 兩國數詞의 檢討結果를 綜合하면 別表와 같다.

韓·日兩國數詞의 發展過程

		1	2	3	4	5	6	7	8	9	10
韓 國 語	數量表示	日	日·月	2下1	2下2	2·3	3橫3	3·4	4橫4	10-1	5橫5
	數詞의 語源	日	月	下	下	2·3	橫3	3·4	4群	-1	橫
	古代發音	하히	두히	시	니	두시	여시	미니	여들	하업	열
	現代語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日 本 語	數量表示	日	日·月	2下1	2橫2	1·2·2	3下3	3·4	4橫4	10-1	5亦5
	數詞의 語源	日	月	下	橫	1·2·2	3群	3·4	橫	-1	亦
	古代發音	하히	두히	미	여	하두두	무시	미니	여들	하업	도
	現代語	히	후	미	요	이쑤	무	나나	야	고고	도

科學技術者倫理要綱

現代的 國家發展에 미치는 科學技術의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우리들의 行動의 指針이 될 倫理要綱을 아래와 같이 制定하고, 힘써 이를 지킴으로써 祖國의 近代化에 이바지 할 것을 깊이 銘心한다.

1.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모든 일을 最大限으로 誠實하고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2.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恒常 專門家로서의 權威를 維持하도록 努力하며, 自己가 所屬하는 職場 또는 團體의 名譽를 昂揚하여야 한다.
3.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法律과 公共福利에 反하는 어떠한 職分에도 從事하여서는 안되며, 의아스러운 企業體에 自己의 名稱을 빌려주는 것을 拒絕하여야 한다.
4.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依賴人이나 雇傭主로부터, 取得 또는 그로 因해 얻어진 科學資料나 情報에 對하여서는 秘密을 지켜야한다. 또는 他人의 資料情報을 引用할때는 그 出處를 밝혀야 한다.
5.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誇張 및 無限한 發言과 非權威的 또는 眩惑的 宣傳을 삼가야하며 또 이를 制止하여야 한다.
특히 他人의 利害에 關係되는 評價報告 및 發言에는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
6.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어떠한 研究가 그 依賴者에게 利益이 되지 않음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報酬를 위한 研究도 擔當하지 않는다.
7. 우리들 科學技術者는 祖國의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最大限으로 奉仕精神을 發揮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應分의 物質的 協助를 아껴서는 안된다.